



서 성 배
(사)한국계육협회장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 한해가 지고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닭고기 업계 모두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닭고기 산업을 지켜나가는 회원사 및 농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지하시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중시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경제권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우리 업계의 경영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업무와 농축산업 생산업무가 조화를 이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win-win'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새 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중 하나입니다.

우리 업계로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산업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합리한 닭고기 가격구조이며 또 우리가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전자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닭고기 가격결정구조'에 대한 연구를 의뢰, 문제해결을 꾀하는 한편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도 회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따뜻한 배려와 초지일관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계육업계의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 연말까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몇 건만이 신고되었으나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차원에서는 농가제도 등을 통해 항상 방심하지 말고 차단방역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문제의 열쇠는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의 의식입니다.

가뜩이나 전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근근이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어

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주어서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 그리고 관련업계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계육업계의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무자년(戊子年)에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한해를 지낼 수 있도록 업계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